

배고파본 사람만 안다

북한주민들의 기아상황에 관한 보도가 외신을 통해 연일 보도되고 있다. 우리 국민중 40대 이상의 연령층은 60년대의 보릿고개시절을 익히 겪었기에 북한주민들의 식량부족으로 인한 고통을 이해하고도 남음이 있다.

너무 상황이 긴박한 것 같다. 우리가 북한이 그렇게 된 이유를 모르는 것도 아니다. 나아가 식량지원 문제이지, 정치 그 자체는 아니다. 오직 동포애의 발로로서만 생각하자. 도울 때는 조건없이 도와야 한다. 어떤 의도적 조건제시나 공치사의 '배품'의 품격을 떨어뜨리려 마련이다.

앞으로 하나될 민족인데

우리 정부는 그동안 아프리카 난민구조나 아시아저개발국에 대한 원조의 대열에 들어선지 오래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북한을 대하는 데 있어서는 언제나 이념적 대립관계를 이해할 수밖에 없는 정치현실속에서 살아온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우리측의 노력이 이번이 물거품이 되는 것을 막고 싶은 것은 물론이다. 그러나 동족상잔의 전쟁까지 겪으며 50여년을 서로 반목하며 살아왔으면서도, 우리가 동포의 굶주림에 대해서는 동등할 수 없는 이유는 분명히 있다. 우리는 원래 하나였으며, 앞으로 하나가 되어야 하나니.

일찍이 부처님은 자비를 실천하기 위한 '보시'를 실천수행의 한 방법으로 제시하였다. 보시중에서도 '무상보시(無相布施)' 즉 받을 사람이 누구지도 모르고 베푸는 것이 가장 보람된 것으로 들었다. 그런 생각은 차치하고라도 우리는 우리의 아무 상관도 없는 저 멀리 아프리카의 굶주린 사람들과도 돕고 있지 않은가.

부처님의 자비심은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에게 미친다. 부처님은 만가지 생명체의 인연을 중시하였다. 비록 남북으로 갈라져 있지만 같은 민족으로 태어난 것도 무한한 인연의 소치다.

먹다 남은 음식 물이 쓰레기로 버려지는 우리의 현실을 부처님의 눈으로 본다면 어떻게 보일지 두렵다. 우리는 부처님시대에 남을 도르려 하는 악업(惡業)을 매일 매일 쌓고 있는 지 모른다. 다같이 조금이라도 아껴서 굶주리는 북한주민을 도울 일이다. 그것은 인도주의, 민족주의 등 거창한 수사(修辭)를 떠나서 불자들의 이타적 실천(利他的 實踐)이 아니고 무엇이냐. 남을 돕는 것 만큼 큰 선업(善業)을 쌓는 일이 어디 또 있겠는가.

다들 조금이라도 아껴서 굶주리는 북한주민을 도울 일이다. 그것은 인도주의, 민족주의 등 거창한 수사(修辭)를 떠나서 불자들의 이타적 실천(利他的 實踐)이 아니고 무엇이냐. 남을 돕는 것 만큼 큰 선업(善業)을 쌓는 일이 어디 또 있겠는가.

들뜨지 말고 조용히 돕자

일각에서는 북한주민을 도우면 서도 식량이 적절하게 분배되지 않을 수 있다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듯하다. 그 문제는 식량의 배급과정에 대한 적절한 국제적 감시나 통제를 강구할 수도 있었고, 북한의 위정자들로부터 다른 용도로 전용하지 않겠다는 소박한(?) 약속을 받아내는 것도 한 방법이 되겠다.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달로라도 가까운 길을 놔두고 굳이 먼 길을 되돌아갈 이유가 없다.

남북양측이 대승적 지엽적(大乘的 地)에서 대처할 수 있을 정도로 성숙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이 은 기 (法博·변호사)

“떡값이 사회 어지럽힌다”

국민회의 初選 30명 지정선언

경조사비등 정치경비 최소화 “단순한 결의안인 실천 앞서야”

국민회의 초선의원 30명이 22일 국회 로텐다홀에서 지정결의대회를 갖고 ‘떡값 근절’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이들은 이날 선언문을 통해 “정치와 검은돈의 단절이야말로 우리에게 맡겨진 숙제”라며 “어떠한 명목의 떡값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또 △경조사비 등 억제가능한 정치경비의 지출을 삼가하고 △고비용 정치구조 청산을 위한 선거법과 정당법의 재정비 △떡값에 대한 처벌조항을 포함하는 정치자금법 개정 등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을 결의했다.

이날 선언에는 정세균 김한길 설훈 김영환 천정배 조성준 배종무 김병대 정한용 유선호 조완현 이상재 최선영 방용석 정동영의원 등 30명이 동참했다. 한편 전북도가 최근 뇌물과 친지 거절방법을 소개한 팸플릿 1천여부를 제작, 도내 공무원들에게 배포해 눈길을 모으고 있다.

자정선언은 정치권이 검은돈 수수의혹에 휩싸여 탈출구를 못 찾고 있는 상황에서 신선한 움직임으로 받아들여진다. 그러나 92년 민주당 초선의원 12명이 주도했던 ‘깨끗한 정치선언’이 실효를 거두지 못했 점에 비추어 이들의 선언도 단순한 결의로 끝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성운 기자



◇국민회의 초선의원들이 22일 국회에서 지정결의대회를 갖고 “떡값근절” 깨끗한 정치풍토 조성을 다짐했다.

를 꼬의 는 “깨끗한 마음이 곧 부처”

일명스님(서울 불암사주지, 조계종 총회의원)은 “이같은 지정선언이 나오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초발심의 마음으로 깨끗한 정치풍토 조성에 정진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진철교수(동국대 정치외교학과)는 “자정선언에 머물지 말고 떡값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하는 등 정치관계법을 개정해서 강제규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렇지 않으면 또 다시 국민을 현혹시키는 정치쇼로 보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부처님께서는 깨끗한 마음이 곧 부처라고 가르치신다. “악한 일 멀리 하고 힘다라 선행하며 내 마음 밝힌다면 모든 부처님 미소진네.”(諸惡莫作 諸善奉行 自淨其意 是諸佛意, 증일 아합경 권1서품)

귀순 황장엽씨가 말하는 북식량난



황장엽씨가 20일 서울에 도착했다. 정부는 그동안 궁금하게 여겨 온 북한에 대한 각종 의문이 적지 않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북한의 식량사정이 어느 정도인냐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도착 성명을 전후에 밝힌 내용은 포괄적인 수준이지만, 매우 심각한 상황임을 전달하고 있다.

“빌어먹는 나라로 전락”

“인민들은 기아에 신음하고 있으며, 당국은 드디어 국제사회에 구원의 손을 내밀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사회주의 지상낙원을 건설하여 놓았다고 호언장담하던 나라가 빌어먹는 나라로 전락했다.”

지난해 8월 작성한 논문 ‘조선문제’에서도 북한 식량상황을 밝혔다. “매년 1백만~2백만톤의 양곡이 부족할 것이다. 최소한 1백만톤의 양곡은 있어야 굶어죽는 사람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

지계

금주

파계

‘인간의 책임’ 윤리 제정

●... ‘인간의 책임’을 강조하는 윤리선언이 제정된다. 21, 22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세계적 종교지도자와 석학 20여명은 사회 각분야의 도덕적 책임과 어린이 존중, 환경을 포함한 지구와 우주에 대한 책임의 규범화를 담은 윤리선언 초안을 심의했다. 초안은 6월 26개국 전직 국가수반들이 참석해 열리는 IAC(세계행동위원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UN사무총장과 전세계 국가수반에게 보내진다.

뇌사어린이 10명에 새생명

●... 13일 교통사고로 뇌사상태에 빠진 김민수어린이가 신장 녹골 각막 등 10곳의 장기를 기증, 10명의 새생명을 탄생시킨 뒤 눈을 감았다. 인천중앙병원 심장센터 박국양과장팀은 김군의 장기를 이용, 심장과 폐를 동시에 이식하는 수술에 성공했다.

웃나무서 항암성분 추출

●... 산림청 임목육종연구소 나천수 박사팀이 21일 울진현의 주요성분인 우루시올(Urushiol)에서 항암효과가 뛰어난 MU2 성분 분리에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MU2는 항암효과가 탁월하고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지 않으면서 급성독성이 전혀 없는 5 가지 물질의 복합체이다. 이번 연구결과가

산업화되며 농가소득 증대와 암치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장애인 재활전문대 세운다

●... 교육부는 장애인의 고등교육 기회 확대를 위해 2000년 개교를 목표로 수도권 지역에 국립 재활전문대학 1개교를 설립하기로 하고 부지선정에 착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학교는 일반학과 7개, 장애인 재활지원 관련학과 4개 등 11개 학과를 설치할 계획이다.

북한어린이돕기 연극잔치

●... 북한어린이돕기 ‘사랑의 연극잔치’가 5월 1일 개막 6월 15일까지 서울 전역의 공연장에서 36편의 연극이 펼쳐진다. 집행위원회는 북한어린이돕기 티켓 2만장을 발매, 티켓 금액 8천원 가운데 3천원을 기금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전북 무주군청 소속 공무원 4백90명은 21일과 22일 이틀 동안 3백여명원을 모금했다.

무의탁노인에 보청기 선물

●... 자신도 청각장애인인 은누리보청기센터 주인 홍영희씨(49)가 18, 19일 시가 1천만원 상당의 보청기를 서울 광진구 환경미화원과 서울시 관내 무의탁노인, 생활보호대상자 등 1백여명에게 전달했다. 홍씨는 지난해에도 생활이 어려운 청각장애인 1백31명에게도 보청기를 나눠주었다.

농약오염 중국산 인삼 유통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고려인삼정품’ 등 5개 회사 9개 제품을 검사한 결과 국내사용이 금지된 농약성분이 기준치의 최고 18배 이상 검출됐다고 발표했다. 안전부는 이들 업체가 값이 국산의 1/3밖에 안되는 중국산 밀수인삼을 원료로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대도시민 80% 수돗물 불신

●... 대도시민 10명중 2명만이 수돗물을 믿고 마시며 2명중 1명은 생수도 믿을 수 없지만 수돗물보다는 낫다고 생각하고 있어 수돗물에 대한 불신이 팽배한 것으로 대도시상수도본부 설문조사 결과 나타났다. 이와함께 생수도 행정동 급수서비스에 대해서도 만족스럽다는 응답이 57.6%에 머물러 상수도정책에 대한 불만도 비교적 높았다.

고속도로 휴게소 유해식품 판매

●... 고속도로와 국도 이용객들을 상대로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팔거나 보관해온 중부고속도로 이천휴게소 소장 등 12명이 수원지검 여주지청에 적발됐다. 경찰은 여행객들이 휴게소 음식을 먹고 복통을 호소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DHEA식품 대량 밀수

●... DHEA 등 건강보조식품을 밀수 또는 판매한 업자 3명이 약사법, 관세법 위반으로 검찰에 구속됐다. 이들이 성인병 및 생기능 강화에 효과가 있다고 선전, 판매한 ‘자무린 골드’ 등은 구토, 현기증 등 부작용을 유발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역중령 군기밀 빼들려

●... 국가안전기획부와 국군기무사령부는 22일 미국인 무기중개상 등에게 방위력 개선사업과 관련한 2, 3급 군사기밀을 빼들린 혐의로 국방부 군수국 김도 공군중령을 구속하고 관련자 7명을 출국금지 조치했다. 김도중령은 94년부터 96년까지 2급 기밀인 국방중기계획 초안 등의 정보를 유출한 혐의다.

판돈 46억원 내기 바둑-골프

●... 서울지검 북부지청은 23일 국내외 해외를 오가며 삼습적으로 내기바둑과 내기골프를 통해 46억대의 도박을 해온 혐의의 김도씨를 구속하고 정모씨를 불구속입건했다.

이들은 95년 일본 오이타현에서 한판에 1백만원에서 5억원까지를 걸고 20여 차례의 내기바둑과 내기골프를 친 혐의이다. 이에앞서 60대 여병장장이 도박판에 빠져 43억원을 잃기도 했다.

법륜사 양로원 안내문

노후를 부처님과 함께 ...

삼보귀의 하우고

급변하는 사회적인 변화로 대가족제도가 무너지고 개인주의 만연과 물질이 좌우하는 배금사상의 틈니바퀴속에서 우리의 자랑인 효(孝)의 근본(根本)이 흔들리는 현실속에서 허덕이다 보니 부모와 자손 형제들이 알지 못하는 순간에 인성이 무너지는 것을 어찌하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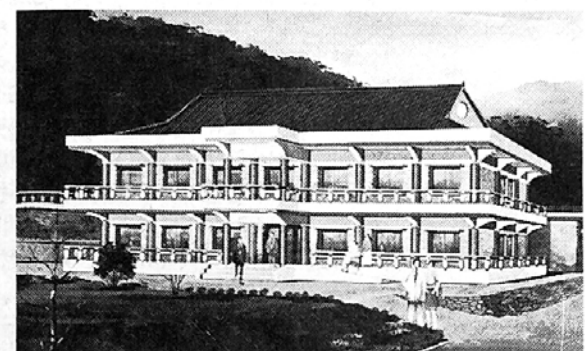
이러한 불안요소가 정년퇴직하신 분이나 연로하신 노인분께서는 한을 갖게됨에 따라 가족간에 갈등이 심화되니 누구에게 책임있단 말인가?

하루가 일년같이 빠른시대에 살고 있는 연법(緣法)인 것을 세상을 떠났다고 해도 연법은 계속 유지되는 것!

우리 불자님께서는 인연법을 중요시 하므로 연로하신 부모님에게 효행을 할 수 있는 길은 부모님의 몸과 마음을 편안케 해 드리는 것이 유일한 효행이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소승이 평소에도 보고 들은바 원력에 힘입어 금반 가야산과 지리산이 합쳐진 만대산에 산수 수려하고 운치 좋은자리에 법륜사 대웅전 및 양로원을 창건함에 따라 낙성성취에 불성 깊은 불자님과 인연되어 남녀노원을 자비심 도량에 모시기를 부처님전에 예를 올립니다! 아담한 현대식과 한옥이 어울린 최고의 설계 및 시설

또한 자체농사로 무공해 음식을 제공하면 가족분이 오셔서 수행할 수 있는 여건과 특히 주말 농장을 입주하신 노인분들의 가족에게 무료로 제공하며, 육탕 및 독시실, 오락등의 편의시설이 마련되고 또한 일본고 설진 삶의 지치고 허전한 가슴에 맺혀있는 한을 기도와 좌선 예불 등을 통해서 노인의 자성이 밝아 성불할 것이며 이러한 여건을 마련해 주신 가족분들께서도 그 공덕이 세세 손손까지 부처님의 복록을 얻게 될 것입니다! 노인분들의 건강과 취미에 따라서 비구니스님께서 불보살을 대하듯 자비심으로 모시게 되오니 많은 인연을 지면을 통해 남·녀 노인분을 한정된 인원까지 모시겠습니다.



구분별 양로 내용 및 금액		
1	구 분	유료양로원 기 타
2	남·녀 총인원	65명 남녀 간접, 폐, 약성기부, 전염성제외
3	방 1실 인 원	1실 1명 서로의 성격을 보고 사주상의 합인율 선정
4	평생양로부담금	1명 해 당 4천만원 단 사망시 공제됨
5	부부양로부담금	2명 해 당 1인 삼천오백만원 합7천만원 공제됨
6	평생환불부담금	1명 해 당 삼천만원에 원30만 사망시 보증금 환불
7	고시 준비생	1실 1명 식대, 편의시설 제공 원30만원
8	편 의 시 설	각 방 마 다 벽장농과 기술부착 텔레비전 전화기등설치
9	접 수 년 월 일	1997년4월1일부터 1997년 5월30일까지
10	입 주 년 월 일	1997년 5월1일부터 입주까지

- * 뜻과 불심의 행을 신천하는 가정에 삼보의 자비가 중안하소서!
- * 빠른 시일안에 접수가 마감되오니 미리 접수바랍니다.

문의안내 : 합천법륜사 (0543)955-1379
마산법륜사포교당 (0551)21-8775

* 계좌번호 : 우체국 610097-0119059(김성봉)
* 대구은행계좌 : 208-08-024746(송동분)

법 륜 사

주지 김운봉

총무스님 손자혜

총무 정병진 합장